

손민숙 연구원

요약

현재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시장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보험사기, 높은 소송 비율 및 소송비용이 주된 원인임.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로리다 입법부는 관련 법률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, 2022년 12월 16일 플로리다 재산보험법(SB 2-A)이 승인되었음. 법안의 승인으로 플로리다 주택보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-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플로리다는 주택보험 관련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, 최근 주택보험 시장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됨¹⁾
 - 미국 인구조사국(U.S. Census Bureau) 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주민 2,150만 명 중 약 75%가 해안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, 허리케인 및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붐이 일어남
 - 그러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플로리다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 전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음
 - 대규모 손실을 계기로 2006년 이후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시장은 소규모 지역 주택보험회사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
 - 보험회사는 미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을 축적하여야 하는데 지역 주택보험회사는 그 부담을 감당하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았으며, 이에 따라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시장은 재보험 및 공영보험에 의존하게 되었음
 - 재보험 및 공영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자 플로리다에서 철수하는 재보험회사들이 늘어났고, 공영보험회사인 시민재산보험회사(Citizens Property Insurance Corporation; Citizens)도 사업 부담이 증가하였음
 - 재보험회사들의 주된 철수 요인은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및 소송비용 때문인데, 보험료 증가율을 살펴보더라도 타 주의 경우 손실 발생 이후 보험갱신 시 보험료 증가율이 최대 40% 정도인 반면, 플로리다의 경우 최대 50%임
 - Citizens의 2022년 6월 말 보험계약 건수는 93만 1,357건으로 2년 전(47만 4,630건) 대비 96.2% 증가함
- 플로리다 주택보험 시장 위기의 주된 원인은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, 보험사기 및 높은 소송 비율, 관대한 법률을 토대로 한 높은 소송비용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²⁾
 - 주택보험 사기는 주로 지붕 수리 청구업자에 의해 주도되는데, 청구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지붕 수리를 권유하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대가로 주택소유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³⁾받는 형태로 진행됨

1)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(2022. 8), "Trends and Insights: Florida homeowners' insurance crisis"

2)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(2022. 8), "Trends and Insights: Florida homeowners' insurance crisis"

3) AOB(Assignment-of-benefits) 또는 Direction-to-pay

- 이와 같은 사기행위는 지붕에 25%를 초과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지붕 전체를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존 플로리다 건축규범(Florida Building Code §706.1.1)⁴⁾을 악용한 것으로, 불필요한 지붕 수리 및 보험금 청구를 유발함
- 보험회사는 청구업자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응소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거나 청구업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,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돌아옴⁵⁾
- 미국 보험정보연구소(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; III)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주택보험 청구액은 미국 내 주택보험 청구 총액의 9%를 차지하는 반면, 미국 주택보험 소송의 79%가 플로리다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남
- 높은 변호사 비용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, 원고인 보험계약자 승소 시 원고의 변호사는 시간당 청구액의 2~2.5배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(Contingency fee multipliers)
- 플로리다 주택보험 시장의 위기는 보험계약자 개인의 해결 능력을 초월한 것이라 평가됨에 따라 플로리다 입법부는 관련 법률의 개혁을 추진하였음

○ 개혁의 결과 2022년 12월 16일, 재산보험법(SB 2-A: Property Insurance)이 승인되었으며,⁶⁾ 해당 법안은 최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산보험법 개혁이라 평가받고 있음

- (신의칙 위반: Bad Faith) 보험계약자는 손실 감정 평가 등을 근거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
- (변호사 보수: Attorney Fees) 변호사는 승소에 따라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, 다만 해당 조항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음
- (청구 처리 기한: Claims Handling Deadlines) 보험계약자 의사 확인 및 조사, 물리적 검사 등 보험청구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기한이 단축되었으며, 보험회사는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직접 견적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
- (청구 통지: Notice of Claim)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1년으로, 보충 청구의 소멸시효를 손실 발생 후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
- (의무적이며 구속력 있는 중재: Mandatory Binding Arbitration)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, 보험회사가 보험료 공제 및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, 보험계약자가 해당 조항에 서명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조항을 보험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, 보험금 청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
 -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보험금 수령 및 보험료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,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
- (양도 계약: Assignment Agreements) 보험금 청구권 양도 계약(AOB)⁷⁾을 금지함

○ 해당 법안의 승인으로 플로리다 주택보험 시장 및 보험료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 민간 보험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4) 2022년 개정을 통해 지붕의 연식에 따라 손상된 부분만 수리하거나, 보험회사가 수리 부분에 대해 공제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
 5) 플로리다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한 경우,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법적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, 보험계약자가 승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고인 보험계약자의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
 6) 그 외 허리케인 이안(Ian) 및 니콜(Nicole)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및 7억 5,00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재해구호법(SB 4-A)도 같은 날 함께 승인되었음
 7) III에 따르면 2000년 플로리다에서 AOB 관련 소송은 1,300건이었으나, 3년 후 7만 9,000건으로 증가하였으며, 2018년 11월까지 약 13만 5,000건이 발생함. 이는 불과 15년 만에 70% 증가한 추세임